

“새로운 친구들과 다양한 체험 즐거웠어요”

광주북구대구달서구‘청소년문화교류캠프’

초등 4-6학년 80명 7-8일 상호 방문
5·18민주묘지·향토음식박물관 탐방
1989년 자매결연 후 우호활동 지속

“처음 방문한 광주에서 좋은 친구도 사귀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어요!” 영·호남 청소년들이 서로의 지역을 방문해 문화를 교류하며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10일 북구에 따르면 자매도시인 대구 달서구와 함께 지난 7-8일 ‘2025년 영호남 청소년문화교류 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광주 북구와 대구 달서구 청소년들에게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



광주 북구와 대구 달서구는 지난 7-8일 ‘2025년 영호남 청소년문화교류 캠프’를 진행했다. 사진은 행사 첫날 북구청사를 찾은 양 지역 청소년들. <광주북구 제공>

를 제공하고 친목 도모를 위해 마련됐다.

28회를 맞은 올해 행사는 북구와 달서구의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40명이 각각 참여했으며 이틀간 20명씩 서로의 지역을 찾았다.

행사 첫날 북구에선 국립5·18민주묘지와 남

도향토음식박물관을, 달서구에선 달서디지털창작센터와 달서선사관 등을 각각 방문했다.

이후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우정을 쌓은 양 지역 청소년들은 다음 날 나주중흥골드스파와 대구 스카펠리에서 시원한 물놀이를 즐겼다.

/인재영기자



광주 남부경찰, ‘희망동행교실’ 개최

광주 남부경찰서는 10일 “지난 8일 남구청소년수련관에서 비형 청소년 선도를 위한 ‘희망동행교실’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희망동행교실은 경찰이 주도하는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으로, 이번 교육에는 사이버 불법도박으로 적발된 학생들이 참여했다.

남부경찰은 도박 예방 전문강사를 초청해 불법 사이버 도박 근절과 디페이크 범죄 예방을 주제로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김중득 남부경찰서장은 “청소년들이 불법 사이버 도박이나 디페이크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교육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주성학기자



GS칼텍스 여수공장, 어르신 복달임 후원

여수시는 “GS칼텍스 여수공장과 삼일동지역발전협의회가 삼일동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500만원 상당의 복달임 음식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나눔은 통닭 150마리와 백설기 19박스 구성됐으며 삼일동 19개 경로당에 GS칼텍스 직원들과 삼일동 통장협의회 회원들이 직접 나서 후원품을 전달했다.

김정형 GS칼텍스 지역협력팀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께 위로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기자

폭우 속 생명 구한 광주 시민 4명 ‘포스코히어로즈’ 선정

동구 소태동서 사투 끝 구조 성공

포스코청암재단, 상패·상금 전달

괴물 폭우가 쏟아진 광주에서 시민의 생명을 구한 이들이 ‘포스코히어로즈’로 선정됐다.

10일 포스코청암재단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광주 동구 소태동에서 기록적인 폭우 속 위험에 처한 시민을 구조한 최승일(49)·김인중(44)·정수연(50)·이장복(32) 씨를 ‘포스코히어로즈’로 선정하고 상패와 상금을 전달했다.

이들은 인근 상가 주민들로, 폭우로 하천 둑이 무너지며 거센 물살이 도로로 밀려오던 상황에서 도로 틈에 다리가 끼어 대피하지 못한 시민을 발견하고 함께 구조에 나섰다.



포스코청암재단은 지난달 17일 광주 동구 소태동에서 폭우 속 급류에 휩쓸릴 뻔한 시민을 구조한 4명을 ‘포스코히어로즈’로 선정, 지난 9일 상패와 상금을 전달했다. 왼쪽부터 이장복·정수연·김인중·최승일씨. <포스코청암재단 제공>

최승일씨가 먼저 물살 속으로 뛰어들었고, 김인중·정수연·이장복씨가 잇따라 합류해 나무

판자로 물길을 막고 근처 공업사에서 가져온 공구로 시민의 다리를 빼냈다.

구조 과정에서 급류에 휩쓸린 차량이 덮칠 뻔했으나 힘을 합쳐 멈춰 세우고 구조를 이어갔다. 약 20분간의 작업 끝에 해당 시민을 무사히 구조했다.

최승일씨는 “물살이 거세 위험했지만 반드시 구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며 “함께 고생한 이웃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포스코청암재단은 2019년 제정한 ‘포스코히어로즈펠로십’을 통해 사회적 귀감이 되는 시민을 발굴·상찬하고 의로운 행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한편 포스코그룹은 지난달 21일 집중호우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해 20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으며, 상금은 긴급구조·복구와 이재민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박현진기자



서남지역아동센터, 광주매일신문 견학 체험

지역신문발전기금 미디어 교육 사업에 선정돼 지역아동센터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광주매일신문은 지난 8일 오후 2시 광주 서구 서남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사 견학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본사 편집국, 광주매일TV 미디어룸 등을 둘러보고, 각 부서별 기자들의 역할에 대해 알아봤다.

또 취재기자의 현장 기사와 사진이 편집 과정을 거쳐 인쇄소에서 제작되는 전 과정을 보면서

신문의 가치를 배웠다. 학생들은 광주매일신문만의 특화된 융·복합 시스템도 체험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 온라인으로 신문을 보며 AI의 신문 읽기도 들어보고, 본보 미디어팁과 영상 제작을 함께 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한편, 광주매일신문은 각 지역아동센터 순회교육이 끝나면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신문을 공모, 시상식을 갖는다. /박희중기자



광주전남혈액원, ‘헌혈 홍보 SNS 서포터즈’ 발대식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은 “최근 혈액원 4층 강당에서 ‘2025 광주·전남 헌혈 홍보 SNS 서포터즈’ 발대식을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발대식에는 김동수 혈액원장과 장미희 헌혈 자원팀장, 서포터즈 19명이 참석했다.

서포터즈는 헌혈 30회 이상 다회 헌혈자 가운데 선발됐으며, 총 횟수는 4천700회로 1인 평균 25회에 달한다.

이들은 이날부터 다음 해 7월까지 ‘생명을 나누GO! 느끼GO! 늘리GO!’를 슬로건으로 광주·전남 지역 헌혈 홍보 콘텐츠 제작과 온라인 홍보, 헌혈 행사 및 캠페인 활동을 펼친다.

김동수 혈액원장은 “개인 헌혈을 넘어 헌혈 지식 콘텐츠 전문가로서 다양한 SNS 채널을 활용해 헌혈 인식 제고와 나눔 문화 확산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성학기자

농협중앙회 담양군지부, 고향사랑기부 ‘훈훈’

담양군은 “최근 농협중앙회 담양군지부와 담양 연고 농협중앙회 직원들이 군정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 2천만원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지난해에 이은 두 번째로 담양군지부 직원과 담양에 연고가 있는 농협중앙회 직원 등 12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마련됐다.

기탁식은 이광재(사진 왼쪽서 네 번째) 농협중앙회 담양군지부장, 백대연 경제기획부장, 이기복 농산구매국장, 김성모 경제지주 전남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광재 지부장은 “담양 연고 출향 직원들이 고향사랑의 마음을 모아 함께했다”며 “앞으로



도 담양군 발전과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기부금이 담양의 의미 있는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부사업 추진과 지역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담양=정승균기자

전남도, 순천시 국제 청소년 야영대회 첫 개최

전남도가 11일까지 3박4일간 순천시청소년수련원에서 국·내외 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등 1천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제 청소년 야영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국제 청소년 야영대회는 청소년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야외·단체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과 교류를 통해 파트너십을 키우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기회의 장으로 마련됐다.

지난해는 전남 지역 학생 대상으로 청소년단체 연합 야영대회를 운영했으나 올해는 국내·외 청소년으로 참가 대상을 확대해 국제교류의 폭을 넓혔다.

야영대회는 ‘Connecting your dream(하나 된 꿈)’을 주제로 불꽃놀이, 워터밤 축제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참가 학생들의 안전



을 고려해 4개 그룹으로 나눠 VR·AR 체험, 보드게임 등 17개 실내 프로그램과 스포츠클라이밍, 파크골프 등 8개 실외 행사로 구성됐다.

강종철 인재육성교육국장은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해 전남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빛낼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목포시 연산동, 취약계층 삼계탕 나눔

목포시 연산동통장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는 “최근 무더위와 폭우로 지친 취약계층을 위해 삼계탕 나눔 행사를 펼쳤다”고 10일 밝혔다.

행사에 참여한 회원들은 여름철 건강 관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한방 삼계탕 밀키트를 직접 준비해 포장한 후 각 가정을 방문해 전달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윤경아 연산동통장협의회장은 “연이은 무더위와 폭우로 지친 어르신들이 삼계탕을 먹고 힘을 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과 봉사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성주 연산동주민자치위원장은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전했다.

최성철 연산동장은 “매년 정성을 다해 나눔을 실천해주는 통장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에 감사드린다”며 “민·관이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 실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목포=정해선기자

모임

▲담양지역발전협의회 8월 정기 월례회의=19일(화) 오전 11시30분 담양공고 앞 원조제일술밭길. 담양군 담양읍 마두길 4. 061-381-1234. (사무국장 이달성 010-3638-3809).

행사

▲제4회 ‘죽화경(竹花景)’ 유럽수국축제(대표 유영길)=31일(일)까지 장미정원 죽화경, 개장시간:오전 9시30분-오후 6시 담양군 봉산면 유산길길(유산리 474). 이용 안내:010-8665-7884.